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8)예수님의 중보기도(3)

[본문: 요 17:11~13]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심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겨질 제자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여,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기쁨을 주옵소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였습니다.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킨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해 들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하자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누리 교회는 떠나는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나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십자가에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고 부활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의 비밀은 한 알의 밀알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썩는 밀알처럼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다.

## 새로운 삶

이 고비를 넘길 때 기독교인은 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나방의 삶이 됩니다. 육의 삶을 살다가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았지만 거듭나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영혼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고 돈을 쓰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번에 일본여행을 가서 ‘나비집’이란 책을 샀습니다. 세상에는 신비하고 기기묘묘한 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벌레같이 살다가 나비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 안에 살지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 안에 사라지만 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은 서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서서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힘들 때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 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이나 무 할례 당이라 할찌라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이 일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쪽속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이었었습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도 모두 무당종속이었었습니다.

그런 족속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만든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매일 ‘싸운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 소식 외에는 들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 장난 터가 되었습니다.

### 교회의 본질 ‘일치’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분열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나는 일치되었고 그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하나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내 것’만 생각합니다.

### 분열의 장애물은 ‘죄’

분열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는 자기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없애지 못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상한 소리에도 순종하면 그 사람을 바보로 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똑똑한 것을 너무나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됨은 온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은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됨의 비밀은 곧 십자가입니다. 희생과 순종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의 비밀을 에베소서 4장에서 ‘온유, 겸손, 순종, 용서’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 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박관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오래갑니다. 피부를 다친 것은 금방 낫습니다. 칼에 베인 것도 다리를 다친 것도 금방 낫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다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치기도 힘이 듭니다. 저는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일이 생깁니다. 흩어졌던 것이 모아지고 넘어졌던 것이 일어서고 빗장이 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이다』

## 기뻐하기로 결단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지 않듯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떠나고 슬픔이 들어오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먼저 정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을 기쁨으로 정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슬픔이 보따리를 싸고 떠나갈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 되고 영혼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 차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